대출문턱 높이는 저축은행… 풍선효과 우려

금융권 대출심사 깐깐해지면서 급전 필요한 서민가계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대부업 등 내몰려

저축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총량 규제에 돌입한 가운데 꾸준히 감소하던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액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대출 부실화 위험이 커지면서 부실률이 높은 저신용자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한층 깐깐해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가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의 대부업 등 제3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연체금액은 2조6426억원으로 전분기 말(2조5314억원)에 비해 1112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액이 5년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올 1분기 저축은행의 총여신은 45조6000억원으로 전분기(43조4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가량 급증했다. 정부가 은행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몰린 영향이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속되는 불황과 금리 상승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저소득·저신용자나 자영업자 등에 몰려 있는 만큼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올해 저축은행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라며 사실상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연 대출금리가 20% 이상인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늘어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고금리대출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중.저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해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저축은행 입장에선 높은 부실률로 인해 고금리가 책정되는 신용등급 8등급 이상의 저신용 대출고객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해 대손율을 낮춰야 한다"며 "신용등급 8~9등급 대출고객을 취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 태도는 강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울과 세종, 경기·부산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저축은행들이 차주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심사를 강화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문턱으로 은행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대부업체나 합법적인 이자율이 무시되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가 보유한 가계대출규모는 은행권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주 고객층이 저신용·저소득자들인 만큼 부실화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 등 제3금융의 가계부채를 키우는 풍선효과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 협업 강화 워크숍 성료

농촌진흥청과 전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 협업 강화 워크숍이 지난 6일~7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개최했다.

그간 전북농생명연구협의체는 농촌진흥청과 도내 대학, 연구소, 기관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농생명 혁신기관 기술정보 교류와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전북을 농생명실리콘밸리로 육성시키기 위해 지역 내 농생명 혁신기관 간 소통의 채널로 자리매김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번 협력강화 워크숍은 새정부의 중요 정책인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정부정책 및 육성방안에 대해 농생명 분야에 실제 적용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 R&D대응방안'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소프트파워', 농업회사법인 씨드림(주) 대표의 '인공지능 기반 농산업 혁신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남원 허브벨리 조성 현장방문 등의 활동이 이뤄졌다.

앞으로 협의체는 전북도가 준비해야 할 4차산업혁명 대응 농생명 산업 육성방안과 지역 내 농생명 혁신기관 간 소통과 정보교류 협력 강화를 통한 농생명 융복합 공동협력 사업 발굴 등 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안재용 기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진우에스엠씨 · 썬더테크놀로지 · 한삼코라 제품… 우선구매 통해 공공판로 지원

전북조달청은 7일 도내 업체 ㈜진우에스엠씨, ㈜썬더테크놀로지, 한삼코라(주) 등 3개사의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도내에는 50개사의 68개 제품이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익산 소재 ㈜진우에스엠씨의 '다단 봄 구조 파괴 장치를 이용한 파괴방수 소방차'는 소방대원이 진입할 수 없는 특수목적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외벽을 파괴하고 방수노즐을 공장 내부로 진입시켜 직접화재를 진압함으로써 화재진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진안 소재 ㈜썬더테크놀로지의 '디지털·아날로그 하이브리드 믹서기능을 경비한 전관/AV 방송시스템'은 고성능 DSP를 적용해 고음질의 오디오 믹싱 및 신호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디지털/아날로그믹서를 갖춘 방송시스템이 선정됐다.

특히 이 제품은 디지털믹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아날로그 믹서로(약 0.2 이내) 자동 전환돼 중단없는 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

김제 소재 한삼코라(주)의 '회전여과 입수관을 구비한 STS 물탱크'는 원심분리 구조의 회전여과 입수관으로 원수의 흙, 모래 등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고, 보강플랜지 시공으로 강풍에 의한 외장재의 벗겨짐을 방지해 청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3,000억원에 이른다.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중식 전북조달청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판로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조달물품 생산 중소기업들이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후에도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과 "도내 공공기관에서 지역 우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도내 우수조달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시제품제작소, 메이커문화 확산 위해 주말교육 시행

전북도와 전북중소기업청이 공동 구축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시제품제작소는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시제품 제작과 장비를 이용해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메이커 양성을 위한 공간이다.

전북시제품제작소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시제작소에 구축된 장비를 이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elf 제작 교육을 연간 실시하며 메이커 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경진원은 주말 운영 수요에 부응해 Self제작 교육의 주말운영을 8일 첫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문패제작으로, 이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장비로 만드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참신한 소재의 교육을 요청했다.

전북시제품제작소 Self 제작 주말 교육은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가족단위도 참여가능하며 8월에는 특별히 가족단위 참여를 위한 패밀리 메이커 day로 진행할 예정이다.

Self 제작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예비창업자 및 일반인은 전북시제품제작소 홈페이지(http://www.jb3dcafe.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 지원된다.

/안재용 기자

전북은행, '우리는 친구다' 어린이뮤지컬 공연 개최

전북은행은 오는 27-29일 3일간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9회 전북은행 메세나콘서트 '우리는 친구다' 어린이뮤지컬 공연을 개최한다.

전북은행은 아동들에게 문화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전북은행 메세나콘서트를 개최해 매회 전석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우리는 친구다'는 부모님의 이혼 이후 겁쟁이가 돼버린 열 살 민호와 활달하고 영악한 동생 일곱 살 슬기남매가 새롭게 이사한 동네에서 힘세고 무섭게 생긴 뭉치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작품이다.

관람신청은 전북은행 전 영업점, 홈페이지(www.jbbank.co.kr)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전북은행 사회공헌 250-7154로 하면 된다.

전북은행 노시형 사회공헌부장은 "높은 완성도와 재미로 서울 대학로 극장에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 공연을 준비한 만큼, 여름방학을 맞이해 온가족이 전북은행을 찾아 즐겁고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54건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186억원 규모, 총 54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일반음식점과 전주시 완산구 소재 대지 등이 있다.

공매 입찰 결과는 13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홍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